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 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0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실용한글 사용빈도 조사결과 1위는 ‘이’

한글자모 24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글자의 수는 수학적으로 따져 2천차정도가 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글자는 1천5백자 정도이다. 나머지 5백자는 쓰여지지 않는 글자들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됐다. 1975년 10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최근 한글기계화연구소가 실시한 한글사용 빈도조사결과 ‘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55년 문교부가 실시한 이래 20년만의 조사결과였다.

한글기계화연구소의 조사는 ①보고서와 일반문서 ②일간신문 ③간행물(일간신문 이외의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등에서 골고루 추출한 26만3천5백36자를 상대로 실시됐다. 그 중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글자는 ‘이’로 8천5백32번, 전체글자의 3.2%를 차지했다. 두 번째는 ‘의’ (7천93번)였고, 이어 ‘다’ (6천5백8번), ‘는’ (5천8백22번), ‘하’ (5천3백23번), ‘을’ (5천47번), ‘고’ (4천3백97번), ‘한’ (3천7백46번), ‘가’ (3천5백98번)순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1955년 조사때 11위였던 ‘의’가 이번 조사에서 2위로 뛰어올랐고 20위에서 9위로 빈도수가 높아진 것이다. 한편 ‘는’은 2위에서 4위로 ‘하’는 4위에서 6위로, ‘가’는 6위에서 10위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에 1955년에 빈도수 100위였던 ‘국’은 27위(2천8번)으로 뛰어올라 그 사용빈도수가 엄청나게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시보는 한글자모 조합이 가능한 1천4백95자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글자는 1백63자로 우리 생활면에 실제 쓰이는 글자는 1천3백여 자임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인쇄 · 출판의 진기록들

기네스북은 세계의 진기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에 인쇄 · 출판업은 과연 얼마나 많은 진기록들을 남겼을까. 1993년 10월 24일자 인쇄신문은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줬다. 세계기네스북에 등록된 인쇄 · 출판 관련 기네스 기록들을 소개한 것.

▲ 최다 인쇄주문 - 초판 인쇄로 가장 많은 주문을 한 책은 제5백80회 자동차협회지(Members Hand Book, 1990~1991)으로 6백15만3천부를 주문했으며 분량은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7배에 해당된다. 1908년 이래의 총 출판부수는 9천767만3천부에 달한다. 한편 ‘The Highway Code(1931년 창간) 지는 1992년 5월까지 1천2백만부가 찍혔으며 1990년 5월에서 1992년 5월까지 240만부가 인쇄됐다.

▲ 최초의 백과사전 - BC 3백70년 아테네에 살던 플라톤의 조카 스페우시푸스(BC 408~338)가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베이에 있던 스코틀랜드수사(修士) 리처드(1173년 사망)가 편찬한 ‘Liber Exeptionum’은 영국인이 편찬한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 최초의 인쇄물 - 1966년 10월14일 한국 경주에 있는 불국사의 석가탑 제2층 탑신부에서 발견된 목판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불교문화가 번성했던 신라 경성왕(AD 751년)시대 이전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最古)의 현존 인쇄물이다. 이것은 가로 52cm, 세로 6.5~6.7cm의 목판에 글자를 새겨 12장의 종이에 인쇄하여 붙여 놓은 것으로 6m 20cm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 최초의 활자 인쇄물 -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를 모은 28페이지의 ‘고문진보’라는 책자는 1160년경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1973년 11월에 발표되었다. 1967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도나루스’의 라틴어문법서가 1450년경 종이에 인쇄됐다고 한다. 그전에는



1454년 독일의 마인쯔에서 구텐베르크(1398~1468)가 인쇄한 페이지당 42줄의 '구텐베르크 성서'가 최초 금속활자 인쇄물로 인정받고 있었다. 정확한 날짜까지 알 수 있는 최초의 인쇄물이려면 1457년 8월 14일 요한푸스트(1400~1466)와 구텐베르크의 주임조수였던 피터 세퍼(1425~1502)에 의해 만들어진 '성서편'이다. 그러나 197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공인한 우리나라의 '직지'는 기네스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 **최다작 출판사** - 1991년 영국의 최다작 출판사는 1천3백35종을 출판한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이다. 1991년 영국에서는 6만7천7백4권의 서로 다른 제목의 책이 출판됐다. 그 중 1만7천6백29권은 재판 또는 개정본으로 출판된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프로그레스출판사는 1989년을 정점으로 매년 50개 국어로 750권의 책을 출판했다.

▲ **출판된 가장 긴 편지** -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Upper Dauphin Sentinel사는 같은 주에 사는 존 슐츠바그가 쓴 2만5천5백13단어로 된 편지 1통을 1979년 8월부터 11월까지 8부로 출판했다.

▲ **최고가 단면 인쇄 대판지** - 177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존 던랭이 인쇄한 '독립선언서' 사본 24개중 하나로 1990년 3월 뉴욕 소더비에서 시카고의 랑프 뉴란에게 159만5천달러에 팔렸다.

▲ **최고(最古)의 출판물** - 미국의 벤 앤트워프 블랙출판사는 'The McGuffey Reader'의 1879년판을 6천만부 인쇄했다. 1968년 5월8일 '여호와와 증인'의 위치바위바이블앤트랙소사이어티사에서 출판한 '영생을 인도하는 진리'라는 책자는 1991년 4월까지 117개국어로 번역되어 총 1억707만3279부가 전파되었다.

▲ **최고(最古)의 간행물**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기 간행물은 런던에서 발행되는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로 1665년 3월 6일 발간되었다. 영국 최고의 주간물은 'The Lancet'로 1823년에 발간되었다.

## ● 인쇄업 근로자 이직 심각한 수준

인쇄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년수가 타산업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10월 20일자 인쇄신문은 노동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평균 근무년수 조사결과를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평균 근무년수는 1994년 기준으로 4.8년 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쇄업체의 경우 평균 3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리나라 평균 근속년수는 1990년 4년, 1991년 4.8년을 기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쇄업종의 경우는 3년정도 근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도 인쇄사가 밀집돼 있는 서울 총무로 인현동 일대는 27.4개월로 불과 2년 남짓만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기는 꼴이었다.

당시 조사결과를 일본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근속년수가 11.2년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길었기 때문이다. 인쇄신문은 이에 대해 인쇄업체의 근로자가 직장간 직업에 대한 애착심 및 근로의식 결여된 것도 문제지만 경영진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개방을 대비하고 고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자체 양성보다는 타회사에서 데려오는 '빼내기식' 인력충원이 만연했다는 것. 인쇄신문은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는 원인은 기계 과다도입외에 업계 전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잦은 이직으로 그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한번 직장을 옮길때마다 경력년수를 올려 평균 10% 정도 인상된 임금을 받고 이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임금상승을 부채질하고, 회사 내에서도 근로자간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